

내 용: 2008여성희망캠페인 언론공동캠페인 관련 원고요청 드립니다

우리 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1999년에 발족된 한국여성재단이 2008여성희망캠페인을 맞아 온라인 정론지 프레시안과 언론공동캠페인을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딸들을 보호하고 삶의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그 중요성을 여론을 통해 알려나가하고자 합니다.

박영숙 이사장님께 원고를 요청드립니다.

구 분	내 용
꼭지명	온라인 정론지 프레시안과 함께하는 2008여성희망캠페인 언론공동캠페인 기고문
원고내용	언론공동캠페인의 총정리의 글로 한국여성재단이 그간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딸들을 보호하고 삶의 주체로 설수 있도록 예방과 지원망 구축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여성을 위한 활동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글
원 고 량	원고지 12매 가량(온라인 게재이므로 원고분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원고마감	2008년 5월28일(수)
원고송부방법	이메일 : [REDACTED]
구체적인 문의사항	[REDACTED]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백진영 과장) 휴대폰: [REDACTED]
기타	

※ 한국여성재단 www.womenfund.or.kr/ [REDACTED]

※ 별첨: 프레시안과 함께 하는 언론공동캠페인 기획안
여성재단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성평등조성사업의 예
프레시안 기고글

관련내용 : 한국여성재단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지망, 지원망구축 지원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과 여성복지사업 중심으로)

2004년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성평등사회 정착을 위한 TV바로보기 및 설문조사>

한국성폭력상담소<더 좋은 상담·성폭력사건 지원자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배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상담소 <대학내 반성폭력 문화확산을 위한 워크숍 및 캠페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부설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이주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여성주의 성교육프로그램>

천주교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청소년을 위한 방문 성교육>

2005년

밀양시성폭력상담소<딸들을 위한 평등 성문화, 성교육 교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2006년

속초성폭력상담소<강원도 내 대학생 성매매예방캠페인 성매매 근절! 이젠 자기 선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한 성폭력·법적 쟁점분석 워크숍, 단행본 피해자 관점에서 보는 법담론>

여성문화인권센터 <가정폭력피해자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찬 도약>

2007년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의 <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기강화 교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성평등문화로 농촌지역 행복지수높이기>

제주여민회 <제주여성,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차별 드러내기>

충남성폭력상담소 <어린이성폭력예방 인형극 DVD제작 및 무료배포사업>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외국인이주여성 인권보호사업>

프레스시안 기고글

① [프레스시안-여성재단 공동캠페인] "일상적인 성폭력 문화 바뀌어야"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

2008-05-06 오후 5:50:21

프레스시안과 한국여성재단이 5월 한 달 동안 공동으로 펼치는 여성 희망 캠페인 "나눔에서 돌봄으로"는 '여성의 빈곤화 문제'와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빈곤'과 '폭력'은 다수의 한국 여성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다.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일상적인 빈곤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동들도 이러한 굴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캠페인의 첫 번째 기고자인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얼마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또 그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여성 폭력'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편집자>

최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 간의 집단적인 성폭력 사건은, 이 시대 어른들의 자화상을 보여 주는 것 같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다. 어린 가해 학생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이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음란물의 범람에 대해, 그리고 형식적 성교육에 대해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연쇄성폭력 사건은 어떻게 이러한 끔직한 범죄가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범행 후 사건을 짚어두고 신고하면 이를 유포하겠노라고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죄자. 이는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을 가해자들이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가해자 처벌강화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팔찌, 유전자정보은행 등 강경책으로 치달고 있는 것을 보면 씁쓸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가해자는 처벌된다'는 평범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성폭력 신고율은 10%미만으로 추산된다. 아직도 90% 이상의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피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짐으로 겪게 될 불이익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입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얼마 전부터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의 경검찰에서 성폭력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면밀한 수사지식의 노하우는 결코 단시일내에 이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은 1~2년이 멀다하고 바뀐다. 이처럼 말뿐인 성폭력 수사전담제 운영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 재판부의 '성편향적인 객관성'에 근거한 판결은 용기내어 고소하고, 고통스러운 수사과 재판과정을 겪어낸 피해자들을 절망케 한다. 최근에는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보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폭행과 협박에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피해자가 증명해내야 하는 '최협의설'의 영향아래 있다. 더욱이 "술 따르기 강요가 성희롱이 아니다", "치마 밑 다리촬영은 무죄다"는 판결은 그동안의 반(反)성폭력 운동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아직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더불어 언론에 노출되는 연쇄성폭력범이나 성폭력 후 살해한 사건들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거리두기를 하는 인식도 문제이다. 직장 내에서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대로 하여금 성적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격려나 칭찬의 의미일 뿐이라는 가벼운 신체접촉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성폭력은 상대적으로 힘(권력)있는 사람이 약자에게 의사에 반해 행사하는 성적 폭력이다. 이러한 성찰적 자기 돌아보기와 함께 이를 실천으로 이어갈 때, 성폭력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문화는 좀 더 우리 곁으로 가깝게 다가올 것이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② [프्रेस리안-여성재단 공동캠페인] 일상의 폭력에 너그러운 사회
"폭력에 침묵하지 마세요"
2008-05-11 오후 12:08:49

프्रेस리안과 한국여성재단이 5월 한 달 동안 공동으로 펼치는 여성 희망 캠페인 "나눔에서 돌봄으로"는 '여성의 빈곤화 문제'와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문제'를 다룬다. '빈곤'과 '폭력'은 다수의 한국 여성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다.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일상적인 빈곤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동들도 이러한 굴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캠페인의 두 번째 기고자인 언니네트워킹의 최이슬기 씨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대해 무딘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회라고 말한다. 일상의 폭력에 너그러운 사회. 그래서 여성들은 성폭력에 대한 공포를 내면화한 채 살아가고 남성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잠재적 가해자가 된다. 필자는 여성들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일어나는 폭

력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자신과 타인의 역할을 성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폭력으로 부터 해방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편집자>

얼마 전 가평으로 언니네트워크 운영진 엠티를 다녀왔다. 어쩌다보니 회의가 밤까지 이어졌고 숙소 밖에서는 한 무리의 남성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놀고 있었다. 소음은 둘째치더라도 내용이 음담패설이라 불쾌했고 견디다 못해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인식했다. 놀러 와서 이렇게 방에만 있다니 '교회에서 온 여자들 아니냐'며 수군대던 그들은 회의가 끝나고 방 밖으로 뛰쳐나가 밀린 담배를 한 대씩 입에 무는 여자들을 보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줌마'들 집에서 애나 보지 뭐하러 나왔냐는 고전적인 발언으로부터, '아가씨'들에게 남은 술을 권하는 발랄함까지 버무려 시비를 걸고 때를 쓰면서 온 몸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어필하는 그들을 '구경'하면서 우리는 즐겁게 놀았다. 이야기를 하고, 술을 마시고, 킁킁대면서. 원치 않았지만 숙소 앞마당과 하늘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 밤의 배경음악은 '년'으로 끝나는 온갖 쌍욕들이었다.

만일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였거나, 그곳이 좀 더 밀폐된 공간이었다면 충분히 공포스러울 만한 상황이었다. 혹은 그들이 동료이거나 직장 상사였다면? 그들의 반응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긴 했지만, 그다지 낯설지는 않은 풍경이었다. 몇 년간 이화여대의 축제에 찾아가서 깡판을 놓았던 고대생 집단성폭력 사건이나, 기업의 고질적인 접대문화도 같은 맥락에 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 없이 노는 법을 알지 못하고, 여자들끼리 노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적응해가고 있던 친구가 울면서 전화를 했었다.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고 노래방에 가서 즐겁게 놀고 있는데, 나잇살 먹은 부장이 옷속에 돈을 넣으려 했다면서. 한 개인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모멸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저런 이야기들을 너무도 많이 알고 있다. 그보다 더 익숙한 것은 사건 후 이어지는 침묵과 해결되지 않는 상황, 피해자의 고립, 성폭력 피해에 언제나 아둔한 잔인함을 발휘하는 사회이다.

어린 소녀에서부터 할머니까지 여성을 상대로 한 끔찍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미친놈, 싸이코패스라고 이야기되는 가해자들은 괴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무딘 성폭력 감수성을 보여주는 다른 얼굴일 뿐이다. 기자 가슴을 만진 정신 나간 최연희 씨가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했던 성희롱 발언들은 사회적으

로 용인되었다. 성폭행범은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진보적인 시민 사회 단체에서도 성폭력 가해자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성폭력을 사소한 것이나 혹은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어떤 것으로 보는 두 가지 시선 모두, 현실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성이 체감하는 일상의 폭력과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범죄는 동일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일상의 폭력에 너그러운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공포를 내면화한 채 삶의 순간을 지나가는 법을 배워가고 남성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잠재적 가해자가 된다.

성폭력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일상의 문화를 바꾸어나가는 움직임이 더욱 중요하다. 여성들의 경우 피해를 입었을 때 물질적·정신적으로 도움과 지지를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남성들은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들을 성애화된 대상이 아닌 동료로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민감하게 문제제기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삶의 국면 속에서 바뀌는 자신과 타인의 역할을 교육하고 성찰하는 것만이 '성폭력 권하는 사회'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최이슬기(언니네트워크 운영위원)

③ [프리티안-여성재단 공동캠페인]"아직도 매 맞는 아내가 있다"

"일상적인 그러나 너무도 치명적인 여성폭력"

2008-05-15 오후 6:36:01

프리티안과 한국여성재단이 5월 한 달 동안 공동으로 펼치는 여성 희망 캠페인 "나눔에서 돌봄으로"는 '여성의 빈곤화 문제'와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문제'를 다룬다. '빈곤'과 '폭력'은 다수의 한국 여성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다.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일상적인 빈곤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동들도 이러한 굴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캠페인의 세 번째 기고자인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회장은 여전히 아내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남의 집안일'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 필자는 우선적으로 여성을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관련 법안의 집행이 좀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며 나아가서는 가부장적 구조와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편집자>

모든 단체들이 바쁘겠지만 요즘 서울여성의전화 사무실은 포스터와 티켓박스로 창고를 방불케 한다. 여기 저기 후원티켓을 파는 탓에 보험회사가 옮겨 왔는가 싶을 정도다. 5월 23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제3회 여성인권영화제가 코앞으로 다가 왔기 때문이다.

상담과 인권지원, 회원조직, 지역사업 등 수많은 일상 사업을 해내며 인력충원 없이 한 단체가 영화제를 주최한다는 건 정말 힘겨운 일이다. 그럼에도 서울여성의전화가 여성인권영화제를 계속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사회가 아내폭력의 문제에 너무도 무관심하고 무신경하기 때문이다.

아내에 대한 폭력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이어서 웬만해서는 여론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한다. 최근 여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발생 빈도는 50.4%로 두 가구 중 한 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다. 그 중 가정폭력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정폭력의 80%가 아내에 대한 학대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주최한 토론회 '가정폭력 피해 지원 시스템의 문제와 과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90-2002년 한국에서 살해당한 여성의 46.4%가 자신의 남성파트너로부터 살해됐다. 21.2%는 배우자에 의해 나머지 25.2%는 내연이나 동거관계에 의한 것이다. 이 중, 과거부터 지속적인 폭행·학대가 있었던 경우가 배우자 관계의 경우 72.7%, 내연·동거관계인 경우 53.6%였다. 이런 통계자료는 아내폭력이 단순히 사소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걸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내폭력의 문제를 여전히 집안일 정도로 치부하는 데 그친다.

아내(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직접적 개입이 시작된 것은 1998년 가정폭력 관련법들이 시행되면서부터였다. 올해는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나는 가정폭력 관련법 제정 운동의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최근의 법집행을 보면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가뭇에 콩나듯'하고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경미한 처벌에 머무르고 있다. 얼마 전 만났던 한 내담자는 30년이 넘게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커터 칼로 얼굴을 긁혀 피가 낭자했고, 죽이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그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집에도 들어갈 수 없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이미 몇 차례 경찰에 신고해 보았지

만 미온적인 경찰의 태도와 그 후 더 심각해진 폭력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 정도의 폭력이 부부 간이 아닌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과연 어떤 처분이 있었을까?

아내폭력 피해자들이 법에 의지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이 법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아내(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정말이지 마지막 희망이 된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절망감이 아내(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내몬다. 법무부가 2004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월을 기준으로 청주여자교도소의 전체 수형자 531명중 가장 많은 경우인 133명(30.5%)이 남편을 살해했고, 이 여성들의 80%가 남편의 지속적이고 잔인한 폭력에 시달려 왔다. 아내폭력은 이렇게 한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는 잔혹한 범죄행위다.

그나마 법이 만들어진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1366 여성 위기 전화와 전국의 300여 개의 상담소 그리고 59개소의 보호시설이 아내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통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가정폭력 피해 자녀들은 주소지 이전 없이 입학, 전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피해자 상담, 시설보호, 부분적인 자활지원은 충분치 않다.

아내폭력은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남성이 여성을 힘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가부장적 사회의 성역할 및 성별관계 자체가 재구조화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아내(가정)폭력 문제의 해결은 가부장제의 해체와 여성의 자립, 평등한 인간 관계를 지원하는 시스템 및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사건 발생초기부터 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눈물짓는 아이들이 모습이 더는 없을 것이다.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회장